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강진군 경로식당' 운영 재개

복지회관 · 경로당 · 노인교실 28개소 운영

시설별 방역소독 실시 · 방역물품 사전 비치

강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관했던 28개의 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을 재개했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3일부터 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이용자들은 2m이상 거리두기, 외부인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동시간대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운영 재개에 맞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사전 비치했으며, 경로식당마다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했다.

또한 각 시설별로 이용자 발열체크 등 건강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긴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민들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는 "경로당과 읍·면복지회관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된 경로식당.

'장흥 한우 삼합' 국민안내양 TV 소개 '시선 집중'

정종순 장흥군수 "기가 막히게 궁합이 잘 맞아"

장흥군을 대표하는 음식 '장흥 한우 삼합'이 유튜브 채널 '국민안내양 TV-뭐든지 홍보해드립니다'에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흥 한우 삼합은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장흥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음식이다. 재료로 사용된 장흥한우, 키조개, 표고버섯은 모두 장흥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장흥은 원래 표고버섯의 산지로 이름이 났다. 여기에 한우와 키조개까지 더해져 장흥 한우 삼합이 탄생했다. KBS 1박2일과 SBS 백종원의 3대천왕 등 유명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이 맛을 즐기려 장흥군을 찾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었을 정도다. 최근 여세를 몰아 유튜브 채널 '국민안내양 TV-뭐든지 홍보해드립니다'에서 장흥 한우 삼합을 알리면서 입소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국민안내양 TV'와 전화 연결을 통해 "장흥 한우는 먹어본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품 중의 명품"이라며, "장흥 한우와 표고 버섯, 키조개는 기가 막히게 궁합이 잘 맞는다. 장흥 한우 삼합을 섭취하면 몸의 면역력 강화와 에너지 충전에도 좋아 코로나19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서 (사)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 김종원 이사장이 출연해 장흥 한우 삼합을 직접 구워 시청자에게 그 맛을 오롯이 전달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관내 직업소개 사업현장 현장점검

미등록 사업주 직업알선행위 등 집중 단속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외국인 고용이 우려되는 관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51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다.

이에따라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미등록 사업주에 대한 직업알선행위 금지 및 단속강화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업체 스스로 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오는 21일부터 군과 읍·면 담당부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11월 1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행정지도 미 이행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직업소개사업 미등록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직업 알선 시(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등) 알선한 자와 고용한 사업주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어들면서 농촌 현장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읍, 민원실 환경개선 · 천변 꽃밭 조성

사무실 확장 · 시범마을 20개소 '우리 동네 꽃밭'

진도읍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민원실 환경개선과 마을·천변 등에 꽃밭을 조성했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민원인 편의시설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실 확장공사를 실시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어르신 한 평 꽃밭 가꾸기를 추진, 시범마을 20개소에 '우리 동네 꽃밭'을 만들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과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 진도읍 천변 유휴지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가족 단위 산책코스로 많은 주민이 찾아오고 있다.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민원실 환경개선과 꽃밭 조성 등이 주민들에게 위로와 힐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청년창업의 꿈, 강진에서 날개 달다

강진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청년창업팀 간담회

강진군은 지난 12일 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강진군과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청년창업팀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옥 군수의 주재로 '넥스트로컬 청년창업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강진군과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청년창업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옥 군수의 주재로 '넥스트로컬 청년창업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시가 강진군 등 13개 지자체와 함께 서울의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의 꿈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넥스트로컬 예선에 통과해 강진에서 창업을 준비했던 팀은 8팀 11명으로, 7월과 8월 2달 동안 1인 당 100만원의 지역자원조사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지역에서 숙박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창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날의 간담회는 강진군과 청년 창업팀이 발굴한 아이템의 사업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달비','아트랩소디', '로컬콘텐츠랩', '오트릿' 등 4개의 넥스트로컬 청년 창업팀이 참여해 개별 PT를 통해 강진군 문화·관광상품 및 특화상품과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강진=김영일기자